

해남산 수산물 브랜드 경쟁력 높이기 박차

전북 70% 완도, 돌김 신안, 낙지는 무안산으로 유통
郡, 브랜드화 업무 전담 수산물유통지원팀 별도 설치
김·전복 등 성분 용역·포장재 지원·공동 CI도 개발

해남이 수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수산물만 따로 전담하는 지원팀을 신설하고 수산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남산 수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수산물 전담팀 신설=해남군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수산물유통지원팀을 설치하고 농산물과 분리, 해남산 수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당장, 해남산 수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청정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활성화 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해남군 수산물 중 돌김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9만t(생산액 980억)으로,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다. 마른김은 전국 생산량의 40%(4500만속)

를 차지하고 김자반은 80%(58만박스)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뿐 아니다. 전북도 전국 생산량의 8%(1600t)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치(1050t), 낙지(230t), 멸치(45t) 등 대표적 수산물 생산지역이다.

하지만 해남산 수산물임에도, 타 지역 업체에 납품되면서 해남산 수산물의 경쟁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남군은 돌김의 경우 신안군 일반상회에 10%가 납품되면서 신안산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낙지는 무안·신안 일반유통상인에게 70% 납품, 무안·신안산 낙지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남산 전북의 70%가 완도도 공급되고 있다는 게 해남군

■해남지역 주요 수산물 생산현황

종류(단위)	생산액	생산량	비고
총계	575.000		
물김(톤)	98.000	90.000	전국25%
마른김(만속)	300.000	4.500	전국40%
자반(천박스)	100.000	580	전국80%
전복(톤)	50.000	1.600	전국 8%
납치(톤)	20.000	1.050	
낙지(톤)	6.000	230	
멸치(톤)	1.000	45	

설명이다. 해남군이 전담팀을 만들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주력 수산물 경쟁력 강화=해남군은 우선, 김류와 전복, 낙지, 멸치 등 4종의 수산물을 주력 품목으로 선정, 성분 분석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노출식 양식방법(물김), 유기질 풍부한 청정해역(백전복), 프랑크톤 풍부(납치) 등 해남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고유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 대대적으로 알려 수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마른김의 경우 해남김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재 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에 대해서도 해남 백전복의 규격화·품질화를 갖추기 위해 전북유통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해남군 수산물에 적용할 공동 CI도 개발키로 했다.

해남군은 아울러 ▲수산물 위판장 및 유통시설 지원 ▲물김 유기인종, 모무늬돌김 고급화 및 브랜드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확대 ▲수산물 상설시장(다기능 복합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개설 등 해남산 수산물만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고급화에 도움이 될 정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재 해남산 수산물은 생산규모에 비해 대형유통업체가 부재하고 브랜드화가 미흡해 일부 신안이나 완도 등 타시군 브랜드로 판매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해남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산 수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 물김 위판장 모습(왼쪽)과 수확한 전복을 선별하는 장면.



해남군 제공

인구 3만명 진도 ‘작은 영화관’ 개관 한달만에 관람객 1만명 돌파

군민 3명중 1명 찾아...‘문화 단비’ 역할

진도의 작은 영화관인 ‘진도아리랑 시네마’(사진)가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를 동외리 무형문화재전수관 옆 아리랑 시네마는 지난달 21일 개관한 이후 한달 만인 지난 20일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넘어섰다. 아리랑 시네마는 2개관(59·39석)을 갖춘 소규모 영화관으로, 지역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성됐다.

진도군 전체 인구가 3만1896명(7월 말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진도군민 3명 중 1명이 극장을 찾은 셈이다. 노인 인구(1만187명)로 치면 한번씩 영화관을 찾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진도군은 이날 1만번째 관람객에게 축하 꽃다발과 영화문화상품권, 진도올금 등을 전달했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절반 수준인 5000원만 내면 볼 수 있는 점도 지역민들의 발길을 끌지 않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 개봉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인근 목포까지 1시간 넘게 걸려 나가는 불편함이 사라진 효과도 컸다. 농어촌 지역민들의 삶에도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단위부터 계모임, 동문회모임, 남녀노소 모두 영화관을 찾고 있는 추세로 반영됐다.

진도군에는 지난 1978년 육천극장 폐관 이후 39년 동안 영화관이 없었다. 진도 아리랑 시네마 관계자는 “전국의 작은 영화관이 개관 이후 2~4개월이 지나서 1만명을 돌파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반응”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마니페스토 전국 기초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완도군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 수상

완도군이 한국 마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지난 2015년(공약이행분야), 2016년(일자리창출분야)에 이어 3차례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완도군은 ‘작은 섬 폐교의 드라마틱한 변신, 느린섬 여행학교’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느린섬 여행학교”는 젊은층의 탈농촌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남게 된 폐교와 태풍피해로 무너진 마을창고 등 유휴시설을 최소한의 보완 작업을 거쳐 지역 문화공간인 ‘청산도 에코뮤지엄’으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약내용과 추진방식의 적합성, 창의성, 확산가능성 등이 뛰어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진행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자원을 재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혈관건강 챙기세요...완도군 ‘레드서클’ 홍보

완도군은 오는 9월 6일까지 ‘레드서클 홍보보급패인(포스터)’을 펼친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캠페인을 의미한다.

군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5일 청산도동리와 농어민체육센터에 ‘자기혈관 숫자 바로알기’ 홍보관도 운영키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5명중 1명



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 자기혈관 숫자를 알고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완도군 설명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고구마 서울 전통시장서 팔린다

5kg들이 6000박스 공급

해남고구마가 서울 전통시장에서 팔린다.

해남군은 서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손잡고 해남고구마 5kg들이 6000박스(30t)를 공급키로 했다. 도농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고구마의 서울판매는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를 열고 지역 생산농가와

전통시장 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인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60여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행사가 열린다.

해남군은 해남 농수특산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 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h2>부안 숙박시설(모텔)</h2>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2>수익성상가매매</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2>영광주택</h2>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2>경매 교육</h2> <p>① 기초실전반</p> <p>▶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p> <p>② 실전투자반</p> <p>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p> <p>③ 프리특별반</p> <p>경매 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p>
--	--	---	---